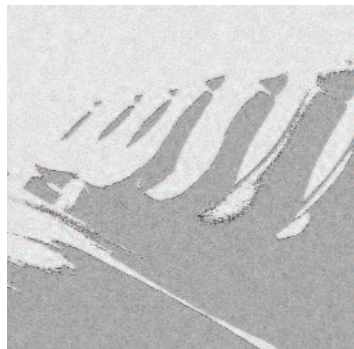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기와금산조
효산강태홍 탄생 120주년 기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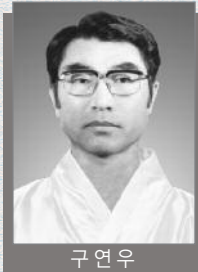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가야금산조

효산 강태홍 탄생 120주년 기념제

무형문화재 신명숙과 제자들의 가야금향연
"2013년 강태홍의 소리"



강태홍



구연우



신명숙

DATE
2013.10.10 (THU) 07:30 PM

PLACE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ORGANIZER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SPONSORSHIP



曉山 姜太弘先生 略歷

- 1893년 3월 21일 전남 무안군 외읍면 교촌리 664번지에서 부친인 명창 강용한(姜用漢)과 모친 정가매(鄭佳梅)의 4남매 중 3남으로 태어남.
- 1900년(8세) 부친 강용한이 38세의 나이로 평양에서 괴질로 사망함.
- 1907년(15세) 임해면 신흥리의 황복녀와 혼인하였으나 후일 합의 이혼함.
- 1911년(19세) 고향을 떠나 대구로 감, 그 이전에 한 동안 광주신청(神廳)에서 있었음.
- 1923년(31세) 경주에서 제자 이소향(李蘇香)과 상경, 이미 병창으로 이름을 날림.
- 1929년(37세) 대구에서 박차경(당시 19세)에게 풍류와 산조를 가르침.
- 1932년(40세) 4월에 서울 사직동에서 발기한 조선악협회의 요곡부(謠曲部)에 참여.
- 1934년(42세) 5월에 발족한 조선성악연구회에 발기인으로 참가함.
- 1936년(44세) 6월 조선성악연구회의 작품인 연쇄창극 유충렬전에 출연, 대구의 달성 권번에서 여러해 동안 박귀희(당시 16세)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게 산조와 병창을 가르침.
- 1937년(45세) 박동진과 함께 경주권번에 있다가 다시 대구.울산권번으로 옮겨감.
- 1939년(47세) 3월 29, 30일 서울 부민관에서 이동백 은퇴공연에 가야금연주로 찬조출연함, 활동근거지를 동래권번으로 옮김. 이때 동기(童妓)였던 원옥화. 강남월 두 사람을 제자로 둬.
- 1944년(52세) 고향인 무안에 들러 가야금을 두고 부산으로 돌아옴. 이 가야금은 효산의 유품으로 현재 강태홍류가야금산조보존회에 보관되어 있음.
- 1946년(54세) 모친 정가매(鄭佳梅)가 84세로 세상을 떠남.
- 1949년(57세) 부산에서 박차경(당시 39세)이 다시 산조를 배움.
- 1952년(60세) 부산에서 김소희(당시 37세)가 2개월간 산조를 배움.
- 1953년(61세) 신명숙이 14세에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춤과 풍류, 병창, 산조를 배움. 이보다 2~3년 앞선 구연우가 입문해 있었음.
- 1955년(63세) 서울에서 조선일보사 주최 독자위안공연에서 산조연주. 이때 명창 임방울의 주선으로 김명환이 장단을 맡았음.
- 1957년(65세) 음력 2월 3일 부산시 서구 토성동 3가 6번지의 김동민씨 댁에서 구음보를 정리 하던 중 앓은 채로 세상을 떠남. 선생의 유해는 화장을 한 후 영도다리 아래의 바다에 뿌려졌으며 위패는 안양사(安養寺)에 모심.



曉山 姜 太 弘
(1893~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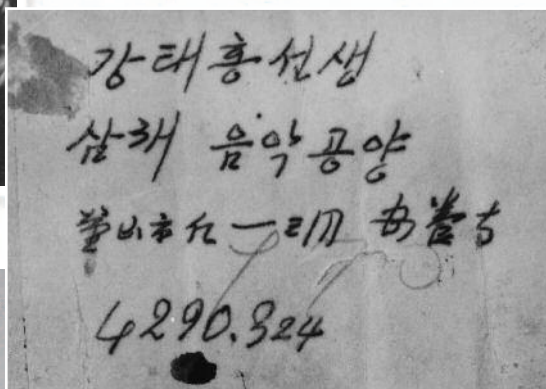
강태홍 선생의 유일한 가족사진으로 부산에서 잠시 고향에 들렀을때 찍은 사진
 앞줄왼쪽 둘째형 강태종 (당50手) / 앞줄오른쪽 효산 강태홍 (당47手)
 뒷줄왼쪽 큰형 강태민의 아들, 왼손에 들고있는 염주에서 그의 佛心을 읽을 수 있다



조선성악연구회의 강태홍 선생(45세때)
 1937년 진주 남강변에서의 조선성악연구회 일행. 송만갑, 이동백 정정렬 외 옛 명창들의 모습과 함께 사진 중앙 전면에 우뚝 선 강태홍 선생의 모습이
 단아하게 보이고 있다.



▶ 1959년 3월 24일 부산시 범일동 안양사에서 있었던 강태홍 선생의 삼재 음악공양 모습. 가야금을 타는 신명숙(좌측에서 두번째) 단소를 부는 기유담 스님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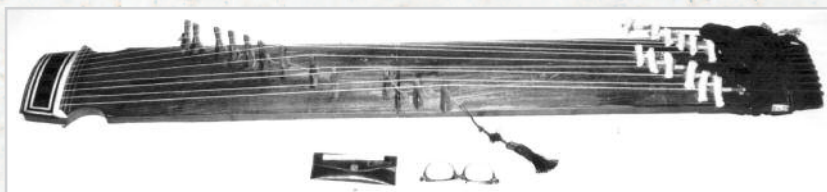
▲ 강태홍 선생의 제자였던 박차경(1911~1990) 19세때 대구에서 풍류와 산조를 배운뒤 39세때 다시 부산에서 산조를 배우는 등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



김춘치(1919~1980)이 가야금 연주 모습. 본명은 金彰雲으로 마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효산 강태홍 선생의 제자가 되었고 1979년 5월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의 보유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이듬해 3월 4일에 사망하였다.



강태홍 선생의 가야금
1944년(52세때) 고향인 무안에 두고 온 것을 양아들인 강귀희가 고이 보존해 왔으며, 후일 신명숙에게 전달하여 현재 보관 중에 있다.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반으로 접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강태홍 선생의 유품, 가야금과 돌보기



효산의 돌보기

효산(曉山)의 음악세계



1937년 (당45세) 서울 경성방송국 방송모습. 강태홍선생의 장고연주 (왼손잡이) 가야금 연주 정금도

효산은 음악을 업으로 삼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형편이었음에도 서당만은 다녔으나 어려서부터도 서당가기보다는 음악하기를 더 좋아해서 귀동냥으로 음악을 배워오기도 했다고 전해 온다.

그가 어렸을 적에 현경면(玄慶面) 구산리(九山里)에서 잠시 살았을 당시에, 어느 산 밑 동네에 성을 조씨라고 하는 가야금을 타는 남자가 살았다. 어린 강태홍은 제대로 돈을 내고 배울 수가 없어서 자주 놀러가서는 창너머로 가락을 듣고 집에 와서 가야금을 타보는 방법으로 가야금을 익혔다고 한다. 효산이 처음으로 가야금을 배운 것이 아홉 살 때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

각한다. 그후 그 조씨 집안은 진도로 이사를 갔으므로, 그 이상은 알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언제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그가 어렸을 적에 함평에서도 잠시 살았고, 그 때문에 후일 ‘함평 강태홍’ ‘무안 강남중’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그 외에 효산이 김창조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다고도 하나 자세히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김창조가 살던 영암과 강태홍의 고향인 무안이 멀지 않았으므로, 잠시 동안이라도 김창조의 문하에서 배웠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효산의 생존시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나에게는 선생이 없다’고 한 적이 있으며, 한 번은 ‘내 선생은 이북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필자가 아는

한 강태홍산조는 김창조계와는 대조적인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산조보다도 독창적인 맛과 깊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 김창조 계열로 되어있는 강태홍 산조의 계보는 앞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효산은 젊은 시절에 명창 김창환에게서 소리를 배웠다고 하는데, 이 점도 분명한 것은 아니다. 다만 김창환은 무안과 가까운 나주 사람으로 강남중이 그의 문하에서 공부한 것은 확실하므로, 사촌지간인 효산도 동문수학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 홍역을 치르다가 목에 바람이 든 탓으로 성음을 버리게 되어 후에 소리를 표기하였다고 한다.

그는 19세에 고향을 떠났는데 그때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갖추었으리라 여겨진다. 고향을 떠나기 전에 그는 한 동안을 당시 음악인들의 집단이었던 광주 신청(神廳)에서 있었다고 하는 바, 이곳에서 실제로 많은 음악적인 체험을 하였을 것이다. 여덟살의 나이에 부친을 여윈 후 어린 시절에도 그는 자신을 실력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였는데, 집마당에 덕석(명석)을 깔고 공부를 하다가 잠시 졸기라도 하면 꿈에 작고한 부친 강용안이 나타나 엄격하게 꾸짖으며 공부를 시켰다고 한다.

그가 고향을 떠나 대구로 간 이유는 자신의 음악세계를 자유롭게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한(恨)과 오기(傲氣)는 커다란 응어리가 되어 그의 생애와 음악에 영향을 주었고 평생을 타향에서 보내면서 고독한 생활을 하여야 했다. 그가 대구로 온 뒤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대구와 경주는 그의 생활 근거지가 되었다. 권번이 생긴 후 경주권번과 대구의 달성권번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병창에 공을 들여 이름을 떨치게 되었으며, 서울과 지방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도 영제풍류를 정리하고 자신의 산조음악을 꾸준히 다듬어 나갔다.

효산은 대구, 경주시절에 밀양으로 자주 내려가서 공부를 했는데 경주의 최금란이 처음 배울 때도 밀양으로 찾아 갔었다고 한다. 그후 효산의 가야금가락은 ‘신(神)가야금’이라는 말이 유명했는데, 그 연유(緣由)가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생긴 것이라고 전해진다.

“언제인가 효산이 말양의 어느 대밭(竹林)에서 가야금을 타고 있었을 적에 집에 있던 사람이 보니 웬 노인들이 추임새를 하면서 둘러앉아 있었다. 그래서 술상을 차려 내갔더니 그 노인들이 온데 간데가 없었다. 그래서 효산에게 물었더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였다”한다.

이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는 효산의 가야금소리가 흡사 귀신의 울음소리를 닮았다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효산 자신도 남들로부터 자기의 산조에 귀신이 붙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 밖에 효산의 가야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전하고 있다.

“다른 산조도 접(접)가락이 있지만, 강태홍산조는 (갑)절의 접가락이라 아주 깊은 맛이 있고 가락이 매우 독특하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굿은 날에 들으면 꼭 귀신이 나올 것만 같다”

“6.25 피난시절에 강태홍, 정남희, 김소희, 박석기등과 부산의 대청여관에서 묵은 적이 있었다. 당시 누구인가 거문고를 타니까 주위 손님들이 다들 시끄럽다고 해서 그만 두었다. 그날 밤에는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잠결에 정남희가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 보니 효산이 옆방에서 혼자 산조를 타는데 혹시 누가 깰까봐 작은 소리로 한과 시름에 잠겨서 타고 있었다. 이윽고 다 타고 났는데 정남희가 ‘저것은 강태홍이 아니라 귀신이 타는 것이다. 전혀 못 들었던 가락이다’ 하며 감동해서 옷자락이 눈물에 젖어 있었다. 정남희는 가야금은 물론 연기도 잘 했고 자존심이 대단해서 남을 추우질(추키질)않았는데 강태홍에게는 절대로 존경을 했다.” “강태홍류는 다른 류에 비해서 개성이 있고 독특한데 장단의 뒤를 (막지 않고) 열고 가는 것이 어려우면서도 묘미가 있다.” “강태홍 가락은 장단 끝에 다음 장단을 걸고 넘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강선생 가야금은 귀신 우는 소리 같았는데 날씨가 굿은 날은 영낙없었다. 거문고 소리 흥내도 잘 났는데 그런 소리를 다시는 들어 보지를 못했다.” 이 이야기들은 효산의 가야금이 귀곡성(鬼哭聲)을 닮았고 재능이 매우 뛰어났음을 말해 주는데 “강태홍 앞에서는 다들 가야금타기를 꺼려했다.”는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의 특별한 재주에 대한 다른 일화는 최금란이 병창을 배울 때 이야기인데 ‘천자 뒷풀이’를 가르쳐 주고나서 이상한 가락을 연주하였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가락이라 무엇인가 물으니 ‘천자 뒷풀이’를 뒤로부터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다한다.

효산의 가야금은 다른 의미의 ‘신(神)가야금’으로도 불려졌다고 한다. 이것은 부산으로 옮기기 전 시절의 이야기인데 새로 만든 그의 가락을 그렇게들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효산이 대구 동화사에서 제자들과 있었을 때 산사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바람소리 등을 그대로 표현해 들려준 다음 “앞으로는 이런 곡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한다.

그의 새로운 가락에 대한 집념과 재능은 실제로 그의 산조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 바로 휘모리의 제19-37장단의 가락은 지(紙)우산에 떨어지는 소나기 소리를 듣고 표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 주법인 연튀김을 계속할 때 엄지를 줄에 대고 왼쪽으로 돌려서 줄과의 마찰음이 생기도록 하여 흡사 소나기가 종이우산에 떨어져 닿을 때의 소리를 연상케 한 것이다.

이 밖에도 멍머구리(개구리)울음소리를 가락으로 표현하여 자진모리 끝의 19장단 이하에 넣었는데, 효산은 이 부분을 가르칠 때

공--고 갱-갱-공-갱-/

고갱-개공-갱-공-갱-

공-고갱-개공-고갱-개/

공고갱개공고갱개고갱개

의 구음으로 소리를 했다고 한다.

한번은 길을 가던 중 새쪽말(조랑말)에 짐을 싣고 오는 일행과 마주치자 길을 비켜줄 때 스쳐가는 말발굽 소리를 듣고 착상을 얻어 가락을 만들었는데, 단모리의 제74장단 이하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는 또 각 지방을 다닐 때에 초상집이 있으면 그곳에서 나오는 울음소리를 유심히 듣고 자신의 가락에 참고를 하

였는데 특히 진양조의 계면조 시작 부분은 슬픔을 가슴에 묻어두고 간헐적으로 흐느낌으로 우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새로운 가락에의 집념으로 결국 그는 산조 한바탕을 완성하게 되었으며, 그 시기는 늦어도 1950년 무렵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효산의 산조를 뒷부분까지 배운 첫 제자는 구연우였는데, 그는 1950년이나 1951년 16,7세의 나이로 입문하여 53년에는 이미 한바탕을 훑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구연우가 입문하기 훨씬 전에 효산은 당시 무용음악에 뛰어났던 박성옥의 남동생을 제자로 두었는데 재주가 있었으나 그만 요절하였다고 한다. 그 후 환갑이 가깝도록 제자를 못 두었는데 때 마침 구연우가 찾아오니 “늙어서야 연우가 제 발로 들어와 번듯한 제자를 만나는구나”하며 반가워하였다.

특히 당시에 음악을 제대로 배우는 제자는 2,3년 후에 입문한 신명숙까지 둘 뿐이어서 매우 귀여워하며 열성적으로 가르쳤다. 한번은 구연우를 가르치는데 따라하는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자 느닷없이 가야금의 현침을 발로 걷어찰 정도로 엄격하였다. 또 언젠가는 구연우가 혼자 연습을 하던 중 밖에서 들던 효산이 “네 소리에 살기(殺氣)가 있구나.”하였는데, 사실은 훗날 구명으로 쥐 한 마리가 자꾸 들락날락거려 연습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 쥐를 잡을까 하는 궁리를 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그 후 구연우는 잔칫집 등을 따라가 스승의 연주를 보게 되었을 당시에, 아직껏 배워보지 못한 새로운 가락을 듣고 귀가 흘렸다고 한다. 그래서 효산에게 가르쳐 달라고 청했으나 “나와 함께 오래 있으면 자연이 몸이 오르듯 오를 것이다.”하며 가르쳐 주질 않자, 그만 섭섭한 마음에 스승의 곁을 떠나 서울로 가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가락은 효산의 옛 산조로서 후일 필자가 채보한 바 있는 17분 가량의 짧은 산조이다. 그 산조의 테잎을 찾게 된 경위는 김춘지가 작고한 후 그의 양녀인 정춘자에게서 자료를 확인하고자 신명숙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는데, 마침 꿈속에 선생님께서 가야금 타는 모습을 뵈었다고 하였다. 그 길로 정춘자를 찾아 갔더니 강태홍선생의 연주

테있을 주면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내놓지 말라고 한 김춘지의 유언과 함께 전해주었다. 후일 그 가락을 채보해본 결과 대략 반정도의 가락이 정남희류와 같음을 알게 되었는데, 자세한 비교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효산은 부산에서 환갑이 다 되었을 무렵 그의 산조 한바탕을 완성시켰지만, 한 때는 ‘강태홍무용연구소’ ‘한국음악무용연구소’ 간판을 걸었을 정도로 무용에도 뛰어났었다. 그는 여러 제자들에게 입춤, 수진춤, 승무 등을 가르쳤고 발과 장단수, 방향을 표시한 무용보를 채보하였다고 한다.

그가 언제 누구에게서 춤을 익혔는지는 알 수 없다. 어려서 집안에서 배웠거나 권변생활을 통해서가 아니면, 혹은 한성준에게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성준은 춤과 명고수로서 일생을 마친 명인이며 효산과는 많은 활동을 함께 하면서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측된다. 우선 두 사람은 조선성악연구회 창립 당시 발기회원으로 함께 참여하였고, 효산의 산조, 병창 음반에도 한성준이 고수를 맡았었기 때문이다. 또한 효산의 승무에 나오는 북가락과 후일 한성준의 손녀인 한영숙의 승무 북가락이 비슷하였다는 점도 흥미가 있는 일이며, “한성준이 양성한 문도가 40여명이라고 했으나, 그 뒤를 이은 사람은 김재선(金在先), 강태홍(姜太弘), 이정업(李正業)뿐이고”라는 기록이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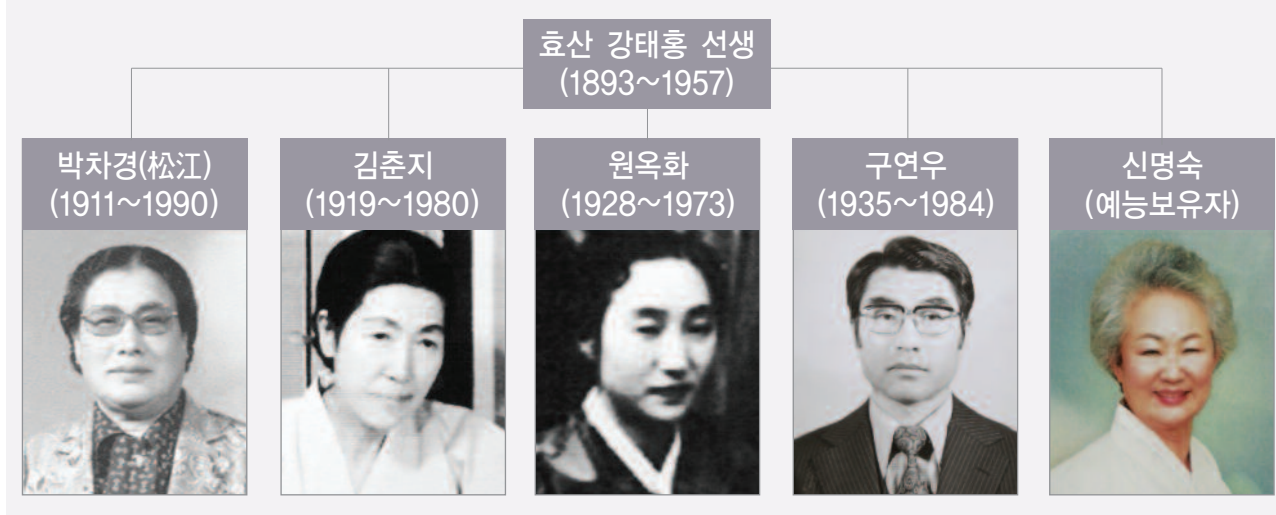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시사해 주기도 한다.

효산은 일찍이 대구, 경주시절에 영제풍류를 정리하고 제자들과 풍류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는데, 부산으로 옮긴 뒤 소리와 가야금 뿐 아니라 양금, 피리, 해금, 단소 등을 여러 사람에게 가르치며 풍류도 즐겼다. 이때 그는 산조의 풍류를 구음보로 정리를 하였는데, 악보에는 반드시 ‘一心’이란 두 글자를 적어 넣었으며 일부 악보만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효산은 성음이 좋지 않았으나 적벽가를 으뜸으로 잘했다고 하며, 병창으로는 화초타령, 대장부가 등을 즐겨 불렀고 연기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한다. 어느 공연에서인가 병창으로 심청가 한 대목을 불렀는데 봉사의 표정을 그대로 흉내 냈고, 끝나고 일어나면서 두루마기를 뒤로 젖혀 입고는 곱사춤으로 무대를 한바퀴 돌면서 퇴장하여 청중들을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한다.

이처럼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그는 소리, 병창, 산조, 풍류, 무용 등에서 두루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새로운 자신만의 가락을 창작하려는 집념과 노력은 그의 독특한 산조가락의 완성으로 결실을 보았으나, 그의 연주활동에 관한 기록이나 녹음자료가 희소하여 아쉬울 뿐만 아니라 그가 꾸준히 정리하였던 풍류와 산조의 악보나 무용보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전승계보



[illegible]

平南沈夢

大監上



千里他鄉孤魂無莫招
甘荼燠石弘植骨之用急

강태홍선생님 친필 유묵

격려사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효산 강태홍 선생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는 부산만의 고유한 가야금 선율을 보존해온 점을 인정받아 1989년 우리 시 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지역 전통문화의 한 축으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전통이란 과거에만 머무르는 단절의 개념이 아닌 현대와의 소통으로 그 고유한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현대인들에게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스승인 강태홍 선생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여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기념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은 스승의 소리를 현대적 의미로 발전시켜 그 명성을 부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을밤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야금 연주가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현실의 시름을 잠시나마 잊고 전통의 향기와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치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념 연주회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부산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가 되는 이러한 연주회를 기획하신 강태홍류산조보존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인사의 말씀



올해로 저의 스승이신 효산 강태홍선생께서 태어나신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래된 경전에 말씀 중 인생은 칠십이요 강건해야 팔십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한계가 있으나 아름다운 우리음악예술은 영원합니다. 수많은 세월과 흐름속에서 강태홍의 소리맥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그 소리를 사랑하였던 고인이 대신 여러 선배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를 비롯하여 보유자후보, 조교, 이수자, 전수자등 강태홍의 소리에 애정을 가진 많은 제자들의 열정과 눈부신 그들의 활동이 있었기에 오늘이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마다 강태홍의 소리 공연을 준비했습니다만 오늘의 120주년 기념공연은 저에게 감회가 새롭고 고회를 훨씬 넘긴 나이로 앞으로 얼마나 더 선생님의 소리를 위해 힘쓸 시간이 남아 있을까 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강태홍선생님의 예술을 더 빛나도록 해주고자 부산시장님의 말씀, 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회장의 이보형선생님, 국립국악원 원장님 이동복선생님의 말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최초의 뿌리를 내리신 이의경선생님을 비롯하여 이번 공연에 참여해주신 각 대학의 교수님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협조해주신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제자들을 대표해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10월 10일

(사)강태홍류가야금산조보존회 회장 신 명 숙

축하의 말씀



효산 강태홍선생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여 갖는 ‘2013 강태홍의 소리’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공연은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의 정기연주회로 격년으로 열리던 효산국악제와 강태홍류 산조발표회를 ‘강태홍의 소리’ 라는 제목으로 묶어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는 1989년에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가야금산조 보유단체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많은 이수자와 전수자를 배출하였고, 이수자와 전수자들은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올해는 효산 강태홍선생님의 탄생 12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며 선생이 남기신 산조는 물론 봉장취·풍류·가야금 병창, 그리고 산조를 12현가야금 2중주로 편곡한 곡과 25현 가야금 2중주로 편곡한 곡 등을 (사)강태홍류가야금산조보존회 신명숙회장을 비롯하여 보유자후보·조교·이수자·전수자 등 수많은 제자들이 연주한다고 합니다.

강태홍 산조는 남성적이고 담백한 느낌을 주며, 붙임새·시김새·연주법·가락 등의 음악적 요소들이 다른 가야금산조와는 달리 독특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공연의 마지막 곡인 가야금 산조는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보유자인 신명숙선생과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제자들이 모두 모여 제주(齊奏)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강태홍선생님의 다양한 음악적 재능이 표출된 여러 장르의 음악적 향기가 부산 지역에 널리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국립국악원 원장 이 동 복

축하의 말씀



강태홍선생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유시에 김창조계통의 산조를 익혔다. 일찍이 고향을 떠나 서울, 경주, 대구 등지로 옮겨 살며 활동하다가 이옥과 국악인들의 영입으로 부산에 이주하여 만년까지 살며 독특한 예술적 경지에 이른 가야금산조를 개척하고 이를 제자들에게 전수하였다.

강태홍선생은 불교에 심취하여 선승처럼 살았는데 심오한 선의 경지를 그의 가야금산조에 담고 있다. 그래서 그의 산조는 내면적으로 신비하고 진중한 음악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외면적으로는 독특한 음형으로 된 기교로 삼라만상의 현상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음악어법이 절묘하고 연주에 고도의 기량을 요구하고 있어 좀처럼 그 높은 경지에 이르기 힘들게 되었다.

강태홍선생의 출생년도를 1893년으로 잡으면 올해로 120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불후의 명작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낸 위대한 음악인 강태홍선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를 기리는 제자들과 애호가들이 대대적인 음악회를 갖는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의 정기연주회로 격년으로 열리던 효산국악제와 강태홍류 산조발표회를

‘강태홍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꾸민 것이다. 강태홍 선생의 위대한 명작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물론이고, 선생이 가야금병창으로 잘 불렀다는 홍보가에서 제비노정기도 공연하고, 강태홍선생이 일제강점기에 유성기 음반에 취입한 새타령, 봉장취도 복원하여 연주한다.

그리고 선생의 음악어법을 소재로 작곡한 두 가지 박풍도 연주 된다. 백대웅교수의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2중주, 지원식선생이 작곡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주제에 의한 25현가야금 2중주가 이것이다. 부산 음악인들이 찬조 출연해서 ‘동래 줄풍류’도 연주된다.

불후의 명작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낸 위대한 음악인 강태홍선생의 탄생 120주년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음악을 이은 음악인들과 그를 기리는 음악인 및 동호인들이 나서서 이런 기념비적인 음악회를 갖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이 음악회가 강태홍의 음악이 새롭게 조명되고 세인의 가슴 속에 각인되리라 믿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10일

한국고음반연구회 회장 이 보 형

축하의 말씀



올해가 故 강태홍 선생의 탄생 120주년이면서 그의 가야금산조 음악이 부산광역시 무형 문화재로 지정 된지 2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

“강태홍의 소리” 를 개최한다고 하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는 많은 가야금 산조 유파 중에서도 기교파의 총수라고 불릴만큼 난해하면서도 재미있는 수준높은 산조입니다. 그런 연고로 가야금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량에 오르면 이 강태홍류 산조에 도전하려 합니다. 이렇게 연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음악이 진정 작품으로서 성공한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24년이 경과한 오늘 현재 31명의 이수자가 배출되어 지역적으로는 부산에 16명, 영남지역 6명, 호남 2명, 충청 4명, 서울 3명이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도 수업중에 있는 전수생이 10명, 전수학교에서 수강을 마친 인원이 300명이 넘는 다 하니,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가 부산에서 꽃을 활짝 피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부산은 강태홍류 산조의 본산이고 그 마당이며 이 산조음악은 부산시민의 긍지를 심어주는 중요한문화유산으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유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결과입니다.

24년 전, 부산에는 음악문화유산이 극빈함을 절감하고 이 산조를 발굴하여 이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필자로서도 예능보유자인 신명숙 여사 못지않게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는 이제 보존에 만족하지 않고 재창조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부산광역시가 1960년대부터 시행해오는 무형문화재 관리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디 이런 전승활동이 앞으로 150주년, 200, 300주년 지속되어, 민족문화의 중추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길 기원하면서 함께하시는 보존회회원님들과 신명숙 예능보유자님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주회도 성황리에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2013년 10월 10일

前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이 의 경

연주순서



· 사회/현경채 (음악평론가, 인문학박사)

1. 영 상

2.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주제에 의한 25현 가야금 이중주 작곡/지원석
· 25현 가야금/배채운 외22명

3. 동 래 줄 풍 류 장구/송강수
· 가야금/최문진 · 해금/송권준 · 양금/임재심 · 거문고/권은영 · 대금/최재호 · 피리/진형준

4.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이중주 작곡/백대웅
· 12현가야금/Ⅰ. 김혜진, 12현가야금/Ⅱ. 이문희 장구/구환석

5. 가야금 병창 장구/송강수
· 병창/강정숙

6. 봉장취 장구/송강수
· 가야금/정해임, 이경애, 김명수 · 거문고/이대하

7. 강태홍류 가야금산조합주 장구/구환석
· 무형문화재 신명숙 외 제자 전원일동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주제에 의한 25현 가야금 이중주

25현가야금/Ⅰ.배채윤, 김지영A, 하혜린, 공혜영, 김혜리, 최경철, 김아름남, 김화정, 박소영, 김다예
25현가야금/Ⅱ.김지영B, 고윤이, 유경화, 정수유, 이나은, 차다영, 정하린, 강나루아, 엄하연

이 곡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가야금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보존회의 보유자후보인 김혜진의 위촉으로 2003년 지원석이 작곡하였다. 기존 산조 안에 현대적인 음악적 분위기를 담으려 한 것으로 강태홍류 산조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조와 강산제, 그리고 계면조가 이명동음조로 변화하기도 하고 또 다른 조성으로 변화하는 등 다양한 조의 변화가 보인다. 또한 산조 선율을 화성화 함으로써 좀 더 색채감이 느껴지고 단순한 화음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장단은 진양부터 단모리까지 이어지는데, 모든 장단은 선율 리듬 안에서 그 장단 구조가 세분화되고 새롭게 구성되어 기존 장단의 모습과는 다르게 표현된다.



동 래 줄 풍 류

가야금/최문진 해금/송권준 양금/임재심 거문고/권은영
대금/최재호 피리/진형준 장구/송강수

줄풍류란 현악기를 중심으로 편성된 연주형태로 현악기를 의미하는 ‘줄’ 과 음악
을 의미하는 ‘풍류’ 가 합쳐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줄풍류편성은 세피리, 대
금, 단소, 가야금, 거문고, 해금, 양금, 장구등 다양한 악기들이 어울려 연주된다.
동래 줄풍류는 강태홍선생이 동래 온천장에 계실 때에 강태홍선생님을 존경하였
던 주변에 여러 풍류지인들과 함께 연주하였으며 신명숙선생님이 14살 때 이 줄
풍류를 배웠다. 강태홍선생님이 돌아가신 후로도 충무동에서 자주 풍류를 연주해
왔으며 오늘 연주할 동래줄풍류는 강태홍선생의 가야금선율에 다른 악기의 선율
을 더하여 구성한 풍류이다. 경기도나 전라도의 풍류음악과는 다른 선율의 흐름
과 독특한 구성이 돋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세피리, 해
금, 양금의 연주로 편성하였다.



최 문 진

- 무형문화재제83-나호향제줄풍류이수
- University of Washington 객원교수역임
- Wesleyan University 연구교수역임
- 현)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
- 현)경상북도립국악단 예술감독 및 지휘자
- 현)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송 권 준

- 부산광역시문화재의원
- 해금연구회 부회장
- 현)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교수



임 재 심

-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이수자
- 5·16민족상 (대통령상)수상
- 송리가야금연주단단장
- 양금연구회회장
- 전라북도문화재의원
- 현)원광대학교국악학과교수



권 은 영

- 부산거문고악회대표
- 현)부산대학교한국음악학과교수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2중주

12현가야금/Ⅰ. 김혜진 12현가야금/Ⅱ. 이문희 장구/구환석

이 곡은 1995년 제1회 효산국악제에서 초연한 곡으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2중주곡으로 편곡한 곡이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특징은 장단의 다양한 붙임새에 있다. 이 곡은 엇붙임이나 장단의 끝을 걸고 넘어가기, 첫 박을 먹고 들어가기, 복잡한 짜임새등을 두 대의 가야금으로 절묘하게 표현한 곡으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새로운 선율을 느낄 수 있다.



김 혜 진

- 부산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제8호보유자후보
- 부산대학교한국음악학과박사과정수로
- 사)강태홍류가야금산조보존회사무국장
- 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 현)부산대학교한국음악학과 출강



이 문 희

- 부산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제8호전수조교
-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종합대상(대통령상)수상
- 우륵문화제전국가야금경연대회최우수상 수상
- 사)강태홍류보존회이사, 무형문화제연합회 기획이사
- 현)부산대, 부산외대, 부산교대 및 대학원, 부산예고출강



구 환 석

- 부산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제8호이수자
- 부산대학교한국음악학과졸업
- 사)강태홍류가야금산조보존회이사
- 현)강태홍류가야금산조지정교수

가야금 병창

판소리 흥보가 中「제비노정기」

병창/강정숙 장구/송강수

병창이란 단가나 판소리의 한 대목을 따로 떼어 자신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그 반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연주방식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야금병창을 일컫는다. 첫 곡 ‘백발가’는 판소리를 부르기 전 목을 풀기위해 부르는 단가 가운데 한 곡으로 유명한 고사나 아름다운 경치를 읊는 가사 내용을 담고 있다. 제비노정기는 판소리 흥부가에서 흥부의 은혜를 입고 강남으로 돌아갔던 제비가 보은의 박씨를 입에 물고 천하의 명승지를 유람하며 흥부집까지 찾아오는 과정을 묘사한 대목이다. 이 제비노정기는 강태홍이 소시적에 소리를 배운 바가 있다는 명창 김창환의 작곡으로 알려져 있다. 언제부터 병창으로도 불렸는지는 알수 없으나 박귀희는 16세때 강태홍에게서 병창과 산조를 배웠고 오늘 연주되는 제비노정기는 제자인 강정숙에서 전수해 줄때 강태홍의 더듬이라고 했다한다.



강 정 숙

- 현)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 사단법인 가야금병창 보존회 이사장
- 학점은행제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대학 학장
- 용인대, 이화여대, 한양대등 출강
-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역임
-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장원
- 신라문화재 기악부 대상 대통령상 수상
-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졸업

봉 장 취

가야금/정해임, 이경애, 김명수 거문고/이대하 장구/송강수

봉장취는 전라도·충청도·경기도 등 남부지방에 전승되어 오던 민속 기악곡의 하나로 조선말기와 일제강점기에 자주 연주되었던 음악이다.

봉장취라는 이름은 음악의 중간에서 새소리를 흉내 낸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으로 봉장추, 봉작취, 봉황곡이라고도 한다. 강태홍의 봉장취는 엇모리와 자진모리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야금·대금·장구의 악기구성으로 되어있다. 몇몇 연주자들이 강태홍의 봉장취를 복원 연주하였으나, 봉장취는 관악위주로 진행되는 선을 진행과 까다로운 리듬진행으로 현재 많은 연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연주에서는 가야금과 거문고 이중주로 연주한다. 이번 연주를 통하여 산조의 발달로 잊혀져가고 있는 봉장취가 21세기에 새롭게 재조명되어 좀 더 활발히 연주되기 바란다.



정 해 임

- 부산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제8호이수자
- 대가야가야금연주단 대표
- 경상북도문화재의원
- 동아시아악물학회회원
- 현)경북대학교교수



이 경 애

- 부산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제8호 이수자
- 부산대학교일반대학원음악학과졸업
- 전, 부산대학교한국음악학과조교
- 전, 부산대학교한국음악학과강사
- 현)부산학술회관악악강사



김 명 수

- 부산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제8호이수자
- 부산대학교한국음악학과박사과정수료
- 전,효원국악관현악단,유경화철현금앙상블멤버역임
- 2010,2011가야금독주회 (현's tory)외 다수공연
- 현,)담울멤버



이 대 하

- 이화여자대학교국악학과졸업
- 부산동보악회대표
- 2011이대하거문고독주회외다수공연
- 현)영남대학교대학원석사재학
- 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부수석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합주

강태홍류가야금산조보유자/신명숙외 제자 전원일동 장구/구환석

오늘날 연주되는 여러 유파의 가야금 산조는 각기 나름의 개성과 매력이 있지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이들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별함 때문에 단연 돋보인다. 이 산조를 짠 강태홍(1893~1957)은 당대를 풍미했던 명인 중의 명인이었고 그가 전하는 음악은 매우 까다롭고 독특하였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선율 붙임새는 장단을 먹거나 건너뛰고, 3소박이나 2소박으로 된 장단에서 이 틀을 벗어나는 리듬을 사용하는 등 엇박을 매우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또 농현을 생략하거나 절제하고 현을 막아서 소리를 내는 음이 많으며, 왕와 꺾는 목을 퇴성으로 처리하고 풍류에서처럼 미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음악적 특색 때문에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오늘날 예술음악으로 자리를 굳힌 산조음악 중에서도 고도로 세련되고 흥미진진한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다.

연주자/신명숙, 임재심, 최문진, 정해임, 김혜진, 이문희, 고연정, 이경애, 조혜형, 오해향, 정시은, 황남은, 김문필, 김명수, 김지영A, 배채윤, 고윤이, 공혜영, 김지영B, 김혜리, 정수유, 주희정, 최경철, 류경화, 이나은, 김화정, 박소영, 차다영, 곽슬기, 정하린, 김송희, 김아름남, 정정화, 김다예, 강나루아, 엄하연, 이지영, 박다운



출 연



사회 / 현 경 채

음악평론가
음악인류학박사
영남대겸임교수
국악방송FM국악당 진행자
한방음악치료학회 이사



대금 / 최 재 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출강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석사 및 박사 과정 수료
1999년 호원학술상 수상



피리 / 진 형 준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동의대 음악과 출강



장구 / 송 강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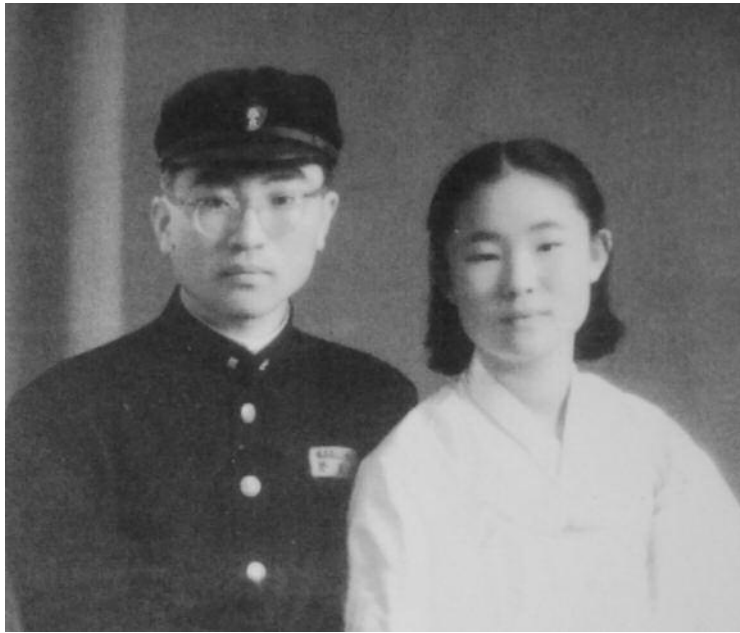
서울시 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이수자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단원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대표

신명숙 (申明淑) 선생

악편

1940. 7. 15 경북 의성읍 의성읍 후죽동 136번지에서 1남 5녀중 막내로 출생
 1953. 3 부산 동래여중 입학, 강태홍 선생의 한국음악무용연구소 입문
 1955 전국무용경연대회에서 승무로 대통령상 수상
 1959. 2 부산 덕영여고 졸업
 1959. 10. 18 제6회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가야금산조로 대통령상 수상
 1961. 2. 7 동문 선배인 구연우와 결혼, 후에 1남 2녀를 둔
 1988. 4. 1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4회 정기연주회 출연
 1989. 5. 4 월간 객석 주최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 초청연주
 1989. 7. 6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부산무형문화재 제8호 지정 (보유자: 신명숙)
 1989. 9. 28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발족
 1990. 11. 9 제1회 보유자 및 전수자 발표회
 1991. 9. 6 국립국악원 주최 제127회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1991. 12. 8 제2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발표회
 1992. 10. 27 제3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발표회
 1993. 11. 24 효산 강태홍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연주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
 1993. 12. 27 KBS국악대상 수상
 1994. 3. 16 대한민국 명인전 연주
 1994. 9. 28 제14회 대한민국 국악제 출연
 1994. 12. 31 제6회 동래구 애향대상 예술부문 수상

1995. 6. 21 제1회 효산국악제 개최
 1995. 10. 22 한일문화교류협회 초청 일본공연
 1996. 10. 26 국립국악원 예악당 개관기념 초청연주
 1997. 12. 1 제2회 효산국악제 개최
 1997. 12. 27 효산 강태홍 선생 일가 예적비 건립 기념공연
 1988. 6. 12 제7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발표회
 1998. 10. 1 국립국악원 주최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1999. 8. 26 전남 무안 제3회 연꽃축제 초청공연
 1999. 9. 8 제3회 효산국악제 개최
 1999. 10. 20 제42회 부산문화상 공연예술부문 수상
 2006. 9. 21 전주소리축제 "유파별 산조의 밤" 초청연주
 2009. 5. 15 요코하마 주최 제4회 가야금과 고토의 콘서트 초청연주(요코하마 능)
 2009. 6. 9 2009 국립부산국악원 화용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공연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강사역임
 2011. 7. 1 KBS국악한마당 산조독주 - 신명숙연주
 2011. 10. 7 2011김해가야금페스티벌 가야금 명인전 - 신명숙연주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2013. 5. 4 국립국악원 연희종류극장 개관기념 명인공연 열흘밤의 꿈 신명숙 초청공연(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강태홍선생 마지막제자 (구연우:20세, 신명숙:15세)



강태홍선생 삼제 음악공양 4290.3.24 신명숙:17세



1978년 10월 자택에서 (구연우, 신명숙)



1980년 국립국악원 소극장 (구연우 발표 공연후)
왼쪽부터:황병기, 구연우, 000, 김동준, 김죽파, 김정자, 신명숙



1989.5.4 서울예음홀에서 "객석창간 5주년기념 한국전통음악시리즈"
가야금 산조 여섯바탕전



2003.12.12 동래 줄풍류 발표회 (강태홍 풍류)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활동연혁

1988. 4. 1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4회 정기연주회 연주 - 신명숙연주
1989. 5. 4	월간 객석 주최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 초청 연주 - 신명숙연주
1989. 7. 6	부산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유자 지정
1989. 9. 28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보존회 발족
1990. 4. 17	경덕애 제1회 가야금 독주회 산조 발표(국악원 우면당)
1990. 10. 25	월간 객석 주최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 초청 연주 - 백혜숙연주
1990. 11. 9	제1회 보유자 및 전수자 발표회
1991. 9. 6	국립국악원 제127회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신명숙연주
1992. 6. 26	경덕애 제2회 가야금 독주회 산조 발표
1992. 11. 27	백혜숙 가야금 독주회 산조 발표
1993. 4. 25	동래구청 주최 전통민속 공개 강좌
1993. 11. 24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악보 출판
1993. 11. 24	효산 강태홍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제 연주회
1993. 11. 25	효산 강태홍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제 학술발표회
1993.	정해임 가야금산조 발표회
1993. 12. 27	KBS 국악대상 단체상 수상
1994. 3. 16	대한민국 명인전 연주 - 신명숙연주
1994. 3. 29	최문진 가야금독주회 산조 발표
1994. 5. 20	임재심 가야금산조 발표회 주최
1994. 9. 28	제14회 대한민국 국악제 연주 - 신명숙 . 백혜숙연주
1994. 10. 9	부산포 축제 한마당 전수자 발표회
1994. 11. 25	이경애 제2회가야금독주회 주최 (부산문화회관 소강당)
1994. 12. 15	자료집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연구》발간
1994. 12. 31	제6회 동래구 애향대상 예술부문 수상
1995. 5. 4	윤은주 가야금독주회 주최
1995. 5. 16	김혜진 가야금독주회 주최(부산문화회관 소극장)
1995. 6. 21	제1회 효산국악제 연주회
1995. 6. 22	제1회 효산국악제 학술발표회
1995. 7. 6	백혜숙 가야금독주회 주최
1996. 10. 22	한일문화교류협회 초청 일본공연 - 신명숙연주
1996. 10. 26	국립국악원 예약당 개관기념공연 연주 - 신명숙연주
1996. 12. 4	제6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발표회
1996. 12. 12	제1회 이수자 발표회 (홍경희, 임재심, 정해임, 구환석)
1997. 4. 1	백혜숙 준 보유자지정
1997. 10. 31	문화유산의 해 기념공연
1997. 12. 1~2	제2회 효산국악제 연주회 및 학술발표회
1997. 12. 27	효산 강태홍 선생 일가 예적비 건립 기념 공연(전남 무안)
1998. 5. 1	《曉山 국악학논문집》 제1집 발간
1998. 6. 12	제7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발표회

1998. 6	제1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워크숍
1999. 7. 22	백혜숙 가야금 독주회
1999. 8. 27	제3회 무안 연꽃축제 초청공연
1999. 9. 8~9	제3회 효산국악제 연주회 및 학술발표회
1999. 9	《曉山 국악학논문집》 제2집 발간
1999.10.20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음반 제작 경덕애 제3회 가야금산조 독주회 (경주 예술극장)
1999.11. 11	이경애 제3회 가야금독주회 (부산문화회관 소강당)
2000.2. 19	이수발표회 (김혜진,이문희,이경애,조혜형,김미수)
2000.6. 1	제8회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발표회
2000.10. 7	2000년 무대공연 지원작품 - 〈하나되는 아리랑〉 공연
2001.9. 14~15	제4회 효산국악제 연주회 및 심포지움
2001.9. 25	이문희 제1회 가야금 독주회 (부산문화회관 소강당)
2001.10.20	경덕애 제4회 가야금산조 독주회(국립국악원 우면당)
2001.11.2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06회 정기연주회 산조협연-이문희연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2.5. 16	김혜진 제2회 가야금산조 독주회(금정문화회관)
2002.10. 3	제14회 부산 아시안 올림픽 경기 초청공연
2002.11.29	오해향 제1회 가야금산조 독주회(포항문화예술회관 소강당)
2002.12. 6	제9회 강태홍류 풍류 발표회
2003.5. 14	제26회 진주시립 전통예술단 정기 연주회 초청공연
2003.7. 1	이수발표회 (오해향, 김혜련)
2003.9. 19~20	제5회 효산국악제 연주회 및 학술발표회
2003.9	《曉山 국악학논문집》 1.2.3 합본 발간 《제5회 효산국악제 연주회 》 기념 음반 제작
2003.12.12	동래 줄풍류 발표회
2004.5. 14	제10회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발표회 - 故 구연우 선생 추모 음악회
2004.6. 4	김혜진,경덕애 전수조교지정
2004.6. 4	홍경희 준 보유자지정
2005.3. 2	김혜진 제3회 가야금 독주회(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05.5. 25~26	제6회 효산국악제 연주회 및 학술발표회
2005.6. 14	홍경희 가야금 독주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2005.7. 5	이수발표회 (정시은)
2005.9.30	국악축전 참가 - 경성대 콘서트 홀
2005.10. 5	고연정 제2회 가야금 독주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2005.10.26	김문필 제1회 가야금 독주회
2005.11.18	부산 APEC 축하 기념 공연
2005.11.15	이문희 제2회 가야금 독주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화요상설)
2005.12.23	김혜련 가야금 독주회 주최
2006.3. 9	효산 가야금 연주단 창단 연주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2006.5.30	윤은주 가야금 독주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화요상설)

2006.10.30	이문희 제3회 가야금 독주회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006.10.31	제11회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발표회
2006.11. 7	경덕애 제5회 가야금 독주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화요상설)
2006.12. 6	이수 발표회 (고재록, 김세정, 이정은, 이보은, 조경화)
2006.12.18	오해향 제2회 가야금산조 독주회(효자아트홀)
2007.4. 18	효산가야금연주단 제2회 공연(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07.10.26	김문필 제2회 가야금 독주회
2007.6. 19	오해향 제3회 가야금 독주회(국립국악원)
2007.12.13~14	제 7회 효산국악제 -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사단법인 설립기념 산조 여섯바탕전(10.16기념관)
2008.4. 25	이수 발표회<차선민, 손창숙, 황남은> - (10.16기념관)
2008.5. 18	제37회 부산민속예술축제 (금강공원 내 민속보존협회)
2008.5. 21	한·일 음악 교류회 “가야금과 고토의 조화”(동래문화회관)
2008.8. 30	제4회 오해향 가야금산조 독주회 (효자 아트홀)
2008.9. 10	효산가야금연주단 제3회 정기연주회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2008.10.28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축하 공연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2008.11. 6	제12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발표회 (부산문화회관 소강당)
2009.5. 15~18	제4회 가야금과 고토의 콘서트 (일본 요코하마 능악당)
2009.5. 30	제38회 부산민속예술축제 (수영 놀이마당)
2009.6. 9	2009 국립부산국악원 제2회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신명숙 명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독주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2009.8. 7~12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워크숍 (전수관)
2009.9. 13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 (용두산 공원)
2009.9. 24	부산·후쿠오카 자매도시 전통음악교류 (부산 문화회관 중강당)
2009.10.30	제8회 효산국악제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9.12.1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49회정기공연 <송년음악회> 산조협연-이문희연주(부산문화회관대극장)
2010.2. 16	이문희 전수조교지정
2010.3. 23	이수발표회<김문필,김지영> -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2010.4. 29	‘구름과 산조-강태홍류 가야금산조’ 김혜진 독주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2010.5. 18	2010 시대공감 열린무대(국립국악원 우면당)
2010.5. 29	제39회 부산민속예술축제 (구덕 민속 예술관)
2010.6. 13	전국생활체육대제전 폐막식 공연 (사직실내체육관)
2010.6. 19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 (용두산 공원)
2010.7. 15~25	2010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워크숍
2010.10. 2	부산·상해 전통음악교류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010.10. 5	이경애 제4회 가야금독주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2010.10. 17	김명수가야금독주회<현's tory> 주최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2010.11. 4	2010 강태홍의 소리 知音知舞天地同化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2010.11. 17	국립부산국악원 초청 중견 명인명무전-이문희연주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
2011. 2. 21	이수발표회 <박희전, 천지은, 김명수, 이희원, 최아라> - (부산민속예술관)
2011. 3. 10	양산부산대학교병원JCI인증 및 중공기념 축하음악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11. 5. 28	제40회 부산민속예술축제 (부산민속예술관)
2011. 6. 30	KBS국악관현악단 제197회 정기공연 <산조흐르는 물을 따라 걷다> 산조협연-이문희연주 (국립국악원 연악당)
2011. 7. 1	KBS국악한마당 산조독주 - 신명숙연주
2011. 9. 28	2011강태홍의 소리 曉山別曲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11. 9. 30	해외자매도시 전통음악교류 한마당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011.10. 7	2011김해가야금페스티벌 가야금 명인전 - 신명숙연주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2011.10. 17	김명수 가야금독주회 <현's tory 두 번째 이야기> (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
2011.10. 25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 '구전심수-이문희 제4회가야금독주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2011.11.22~24	2011년 일본 시모노세키 '리틀부산축제' 참가(일본 시모노세키 그린몰 일대)
2012. 3. 2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1회 정기공연 <국악, 불을 품다>산조협연 - 신명숙연주
2012. 5. 26	제41회 부산민속예술축제 (수영민속예술관)
2012. 7. 17	2012년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작품전 초청연주 (부산시립박물관)
2012. 7	2012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워크숍 (전수관)
2012. 9. 14	해외자매도시 전통음악교류 한마당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012. 9. 19	오해향 제6회 가야금 독주회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극장)
2012.11. 6	2012 강태홍의 소리-敎學相長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12.11. 15	국립부산국악원 초청 중견 명인명무전 - 김혜진연주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
2012.12.23	난계국악관현악단 제50회 정기공연 <송년음악회> 산조협연 - 이문희연주 (난계국악당)
2013. 3	부산시무형문화재제8호강태홍류가야금산조 이수 평가발표회 (배채윤, 이선희, 조영아)
2013. 3. 15	김혜진 보유자후보지정
2013. 5. 4	국립국악원 연희풍류극장 개관기념 명인공연 열흘밤의 꿈 신명숙 초청공연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2013. 5. 16	이문희 제5회 가야금 독주회 주최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2013. 5. 25	제42회 부산민속예술축제 (구덕놀이마당)
2013. 5. 29	김혜련 제2회 가야금 독주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2013. 7. 11	연정국악관현악단 제139회정기연주회 <국악새나래를 펴다> 산조협연 - 이문희연주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아트홀)
2013. 7. 6~28	2013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워크숍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전수관)
2013.10. 1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고연정 가야금 독주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보유자 및 전수자



신 명 숙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회장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가야금산조 보유자



백 혜 숙
전 부산대학교 교수



임 재 심
원광대학교 교수



최 문 진
영남대학교 교수



정 해 임
경북대학교 교수



김 혜 진
보유자후보



이 문 희
전수조교



정 덕 애
전수조교



구 환 석
이수자



고 연 정
이수자



이 경 애
이수자



조 혜 형
이수자



김 미 수
이수자



오 해 향
이수자



김 혜 련
이수자



정 시 은
이수자



고 재 록
이수자



김 세 정
이수자



이 정 은
이수자



이 보 은
이수자



조 경 화
이수자



차 선 민
이수자



손 장 숙
이수자



황 남 은
이수자



김 문 필
이수자



김 지 영 A
이수자



박 희 전
이수자



천 지 은
이수자



김 명 수
이수자



이 희 원
이수자



최 아 라
이수자



배 채 운
이수자



이 선 혜
이수자



조 영 아
이수자



한 지 우
전수자



고 윤 이
전수자



공 혜 영
전수자



박 은 정
전수자



김 지 영 B
전수자



김 혜 리
전수자



정 수 유
전수자



주 희 정
전수자



최 경 철
전수자



류 경 화
전수자



하 혜 린
일반전수자



서 희
일반전수자



김 화 정
일반전수자



이 나 은
일반전수자



박 현 정
일반전수자



박 소 영
일반전수자



차 다 영
일반전수자



이 혜 주
일반전수자



정 하 린
일반전수자



곽 슬 기
일반전수자



방 은 지
일반전수자



정 정 윤
일반전수자



김 미 나
일반전수자



정 명 진
일반전수자



김 다 예
일반전수자



강 나 루 아
일반전수자



엄 하 연
일반전수자



정 효 은
일반전수자



최 은 정
일반전수자



이 초 희
일반전수자



김 송 희
일반전수자



김 아 름 낭
일반전수자



정 정 화
일반전수자



이 지 영
일반전수자



박 다 운
일반전수자

staff

음악감독 : 김혜진 기획 : 이문희, 강성화 총무 : 고윤이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이사

신 명 숙 :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회장

백 해 숙 : 前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교수

김 혜 진 : 사무국장, 보유자후보

배 양 현 :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정 용 각 :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총장

이 문 희 :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가야금산조 전수조교

구 환 석 :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가야금산조 이수자

오 해 향 : 영남대학교 겸임교수

후 원



※ 본 연주회는 2013부산문화재단 지원금을 일부 지원받아 연주됩니다.